숯불 향 가득 미식 축제,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24일 개막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서 광양의 맛과 멋,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향연 펼쳐져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승배)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숯불 속에 피어나는 맛과 그리움의 향연'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축제 첫날에는 신명나는 농악 한마당으로 막을 올리고, 광양 원님 행차 재현 퍼레이드, 외줄타기 공연, 광양숯불문화 기획무대 '미디어 대북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또한 개막식과 함께 불꽃놀이와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서막을 장식한다.

둘째 날에는 광양시청년가요제, 지역 예술공연단 및 광양시립합창단의 공연, 지역 예술인의 밤이 잇따라 열리고, 영호남유소년 생활체육씨름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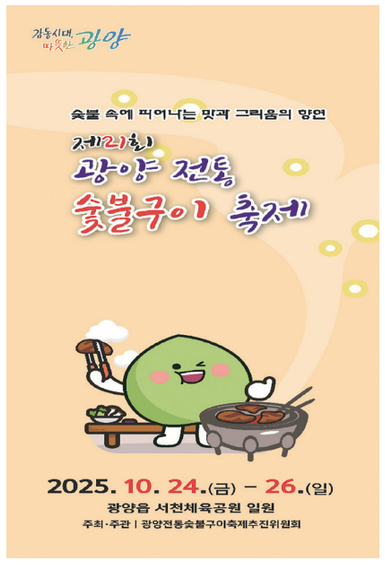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 다문화 페스티벌, 타악 페스티벌,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광양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축제 무대를 채우며, 초대가수 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3일간의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부대행사로는 서천무지개분수를 배경으로 한 에어바운스 '매돌이 포토존', 수변무대 버스킹, 한우 시식회, 광양불고기 마그넷 만들기, 숯불구이 테마관 운영, '구경구미' 컬러링 엽서 체험 등 광양의 문화를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에어바운스 매돌이 포토존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봄과 가을, 서천변을 찾는 체험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우승배 위원장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광양시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며 "올해는 21회를 맞은 만큼 다채롭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특히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늘려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년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민선8기 취임 1주년 행사 대신 군민생활현장 방문

군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군민을 위한 시간으로

전남 곡성군이 민선8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군은 행사 대신 취약계층, 농가 등을 찾아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뜻깊은 날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재선거로 조상래 군수가 제48대 곡성군수로 당선되었고 올해 10월 17일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 군수는 재선거로 당선된 만큼 남은 임기가 길지 않고 실용 행정 방침에 따라 기념행사는 생략하고 군민들에게 달려갔다.

조 군수는 아침 일찍 배우자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생활 시설인 곡성읍 소재 삼강원에 방문해 삼강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배식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조 군수는 "사회적 취약계층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군정을 펼치겠다"라며, 원생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충의공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대한 참배를 진행하였고,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옥과면 소재 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하였다. 영농 현장에서 조 군수는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생산을 뒷받침할 유통 판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판로 개척과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끝낸 후에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시로 달려갔다.

조 군수는 "기념식보다 군민과 함께 땀 흘리는 하루로 1주년을 맞고 싶었다"라며 "군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곡성의 내일을 군민과 함께 그려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년 동안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상시 진료 개시 ▲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출산율 반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군민 체감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순천시 지원으로 순천농협 낙안지점 농기계수리센터 신축

순천농협 낙안지점 경제사업부 준공… 농업인 편익 향상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의 지원으로 농기계수리센터를 신축한 순천농협 낙안지점 경제사업부 준공 기념식이 지난 16일 개최됐다.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준공식에는 강형구 순천시의장, 최남휴 순천농협조합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업인, 농협 관계자, 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증축한 낙안지점 경제사업부는 영농자재센터와 농기계수리센터를 함께 갖추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농기계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한 시설로, 지역 농업인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농기계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영농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낙안지점 경제사업부와 농기계수리센터 준공은 순천시와 협업으로 완성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순천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여순사건 제77주기 정부주최 합동추념식 구례군서 개최

도올 김용옥 선생 초청하여 구례지역 여순사건 역사 강의 개최

전남 구례군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여순사건 제77주기 정부주최 합동추념식'이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여순사건법」시행 이후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된 행사로, 정부 대표와 도지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유족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전 9시 30분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거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 및 분향 ▲정부대표의 추념사 ▲유족 대표들의 인사 ▲도올 김용옥 선생의 평화의 메시지 낭독 ▲진상규명과 명예화복사업 추진 경과보고 ▲여순사건 피해 유족의 사연 송출 ▲추모공연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구례군 섬진아트홀에서 구례지역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도올 김용옥 선생의 특별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을 품고 살아오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비극적 진실이 널리 조명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 속에 지역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완도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6,573가구 대상 국적, 종교, 교육 수준, 가족 돌봄 시간 등 조사

완도군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완도군에서는 20% 표본에 해당하는 6,573가구를 대상으로 국적, 종교, 교육 수준, 가구 내 사용 언어, 혼인 상태, 가족 돌봄 시간 등 55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는 주민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비대면 조사 미참여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10월 14~15일 양일간 조사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 및 안전 관리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정책과 발전 전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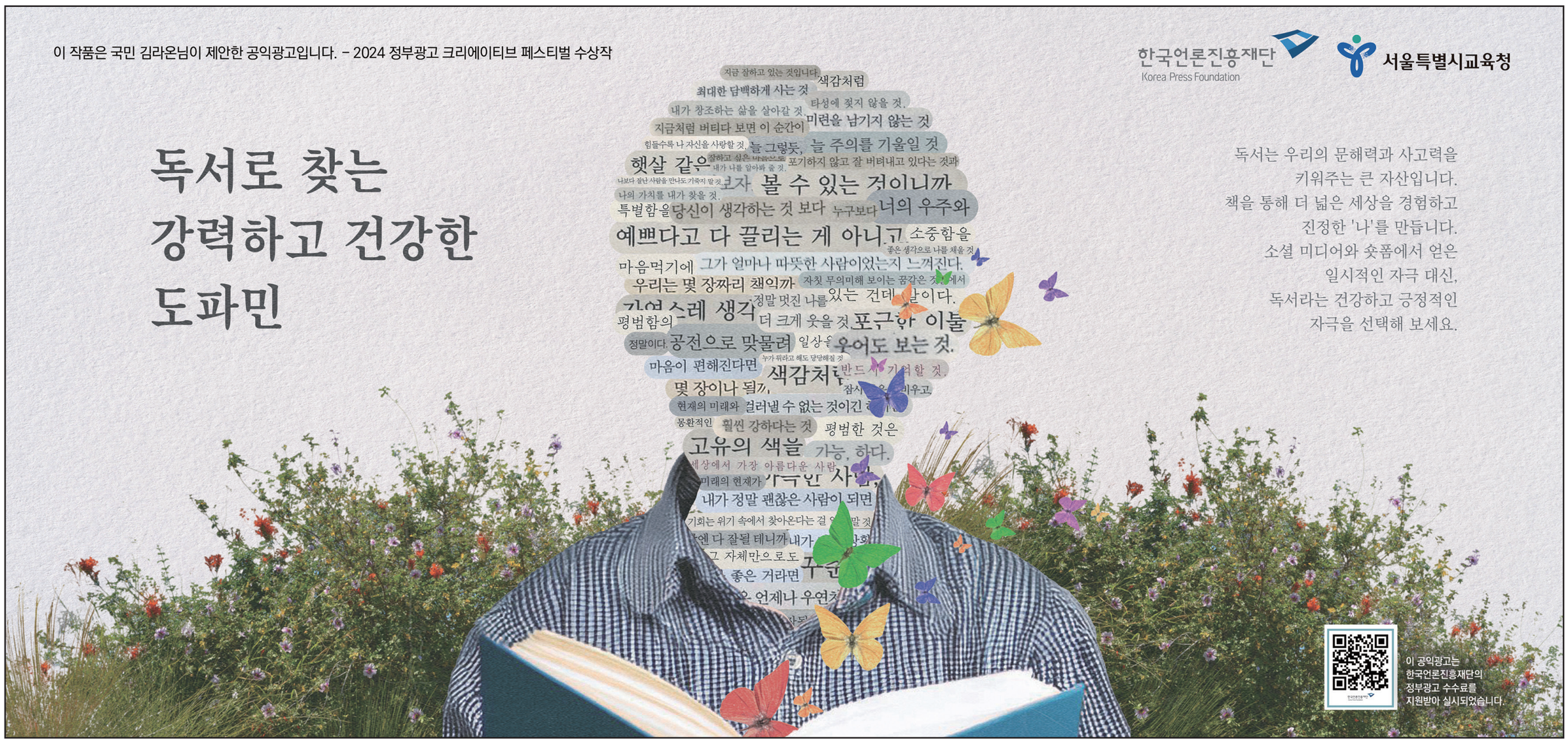
☎062-525-9775

영광군,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 군민에게 50만 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10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9,230명에게 246억 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청기간(9. 22.~10. 31.)을 혼동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되었다.

2차 지급대상 50,540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라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